

# AIDS NEWS

## 신약개발 등 힘입어 사망률 감소

미국과 프랑스의 에이즈사망률이 사상최초로 감소했다. 미국질병통제센터(CDC)는 최근 95년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에이즈사망자가 2만 5천여 명에서 96년 2만 2천여 명으로 13%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서방선진국 중 미국 다음으로 에이즈 환자가 많은 프랑스도 에이즈사망률이 25%나 감소했다고 잇따라 발표했다. 프랑스의 경우 사망률뿐만 아니라 발생률도 21%나 감소해 에이즈는 이미 불치병에서 난치병의 하나로 전락한 느낌이다.

이처럼 서방 선진국가에서 에이즈가 한풀 꺾이기 시작한 것은 이들 국가의 적극적인 에이즈 예방교육과 홍보효과 외에 에이즈치료에 효험을 발휘하는 각종 신약들의 개발에 힘입은 바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HIV치료약 「클리카시반」 본격 발매

일본 万有제약은 지난 3월 31일 신형 HIV치료약인 「클리카시반」(일반명 「인지나빌」)의 수입승인을 취득, 4월 1일부터 발매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클리카시반은 万有제약의 親會社인 미국의 멀크사가 개발한 약이며 일본에서 프로테아제(단백질 분해효소)억제제로서는 처음으로 승인된 것이다. 이 치료약은 96년 3월에 이미 미국의 식품의약품국(FDA)에서 그 승인을 취득하는 등 이미 49개국에서 승인되었다.

## FDA 에이즈 발병억제제 3종 승인

美식품의약품국(FDA)이 어린이용 2종과 성인용 1종 등 모두 3종의 에이즈 발병억제제를 승인했다고 이들 제품을 개발해낸 제약회사들이 밝혔다.

에보트 래버러토리스사와 아구론 제약사는 이 날 각각 발표한 성명서에서 성인 및 어린이용 에이즈 발병억제제로 아구론사가 개발한 비라셉트와 에보트사의 어린이용 신약인 노르비르(일명 리토나비르)가 FDA의 승인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번에 승인된 약품들은 모두 프로테아제 억제제로 에이즈를 발병시키는 인체면역 결핍바이러스(HIV)의 번식을 억제하는 에이즈 발병억제제로서는 비교적 새로운 형태의 약품들이다. (워싱턴 AFP=聯合)

## 파마시아&업존, 에이즈 약제 FDA승인 취득

미 식품의약품국(FDA)은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 치료제로 스웨덴제

제약회사인 파마시아&업존사가 개발한 델라비르딘(상품명 리스크립터 Rescriptor)을 승인했다.

파마시아&업존사는 이날 FDA가 리스크립터를 다른 에이즈 약제와 혼합해 투여할 수 있도록 승인함에 따라 한달 내에 이 약제를 시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리스크립터는 에이즈 치료제의 3대 주요계열 중 비핵산전사억제제(NNRTI)계열에 속한다. 이 새로운 에이즈 치료제는 2천 4백명의 환자를 대상으로한 임상실험을 거쳐 상당한 효과를 나타냈으며 하루분 약값은 6.16달러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 AZT 신생아 에이즈 감염방지효과 연구진 감염률 5%선이하로 낮춰

산모를 통한 신생아의 에이즈 감염률은 AZT로 치료하면 5%선 이하로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과학자들이 밝혔다.

미국립보건원(NIH) 연구진에 따르



•에이즈예방 홍보용 책자

# AIDS NEWS

면 당초 에이즈에 감염된 산모와 신생아에 대해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신생아들이 전부 보건자가 되는 것으로 가정했으나 실제 감염률은 25~40%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또 산모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 중에 AZT치료를 받고, 그리고 산모가 아기를 낳은 후 6개월동안 신생아에 AZT를 투여할 경우에는 감염률이 더욱 떨어져 7.6%까지 떨어지는 고무적인 결과도 발견했다고 말했다.

NIH산하 아동보건 인간개발연구소의 린 모겐슨 박사는 이번 연구를 통해 모든 임신부가 에이즈 감염여부를 테스트 받아야 할 필요성은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베데즈다 UPI=聯合)

## 아프리카 감자서 에이즈치료물질 추출 완치까지는 안가...혼합치료제와 병용 검토

아프리카 감자로 알려진 식물로부터 추출한 물질이 에이즈환자의 면역체계를 강화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탈렌보쉬대학 메디컬 센터의 면역학교수인 패트릭 부이크 박사는 이 물질을 93년부터 3백 25명의 에이즈환자들에게 임상실험한 결과 면역세포인 T세포가 크게 안정되고 일부 환자의 경우에는 T세포가 성장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부이크 박사는 그러나 이 에이즈환자들이 완치되지는 않았다고 밝히고 유럽, 미국 과학자들과 현재 쓰이고 있는 에이즈 혼합치료제와 함께 이

물질을 병행 투여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이크 박사는 이 물질의 장점은 AZT와는 달리 부작용이 없는 것이라고 밝히고 이 물질은 1개월 투여분이 34달러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AFP=聯合)

## 에이즈 '경구피임약'방식 실험 성행위 후 먹으면 효과여부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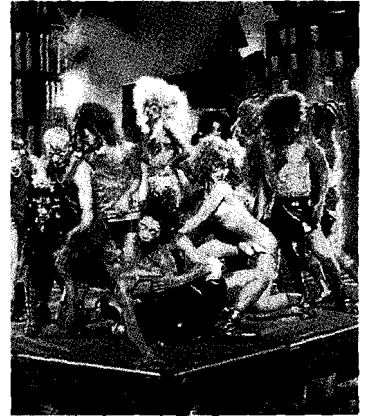
샌프란시스코 종합병원 연구원들은 앞으로 수 개월동안 에이즈예방을 위한 '성행위 후 복용 경구피임약' 실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하룻밤의 무책임한 행동이나 불운으로 임신하는 것을 막기위해 경구피임약을 먹으면 효과를 볼 수 있듯이 에이즈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의 치료가 가능한가를 입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 실험은 사고나 위험한 섹스행위로 에이즈 바이러스(HIV)에 노출된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에이즈 환자용 감염예방약물을 30일간 복용케 함으로써 예방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이같은 실험은 주사 바늘에 찔리는 사고로 에이즈에 걸린 보건관계자들에게 에이즈 치료약인 AZT를 30일간 투여한 결과, 감염률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연구에 근거한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UPI=聯合)

감사 30만명 에이즈로 5년내 사망  
25~30세 남성들 매춘부 즐겨찾아  
캄보디아와 만주 적십자가 공동으



로 캄보디아 도시 및 농촌 거주 1천 3백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담조사에 따르면 25~30세의 캄보디아 남성들이 매춘부를 계속 찾고 있으며 이들 남성 중 '가끔씩' 콘돔을 사용하거나 아예 사용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거의 절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관리들은 이에 따라 캄보디아가 아시아 최대의 HIV 감염국일지도 모르며 앞으로 5년내로 최고 30만명의 캄보디아인들이 에이즈 관련 질병으로 사망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같은 조사 결과는 응답자들 가운데 도시 거주자의 75%이상, 농촌거주자 50%이상 이 에이즈에 대해 알고있고 게다가 콘돔을 사용하면 에이즈 감염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프놈펜 AFP=聯合)

佛의사 7명 혈액감염 스캔들 추가  
기소

# AIDS NEWS

프랑스 혈우병 전문의인 의사 7명이 지난 80년대 각료 3명 등 고위 공직자들이 에이즈에 감염된 혈액제제의 유통을 방조했다 기소된 에이즈감염 혈액 스캔들에 연루돼 추가기소됐다.

이 스캔들은 90년대 초 프랑스 보건관리들이 에이즈 감염 혈액제제의 유통을 묵인, 이로 인해 혈우병 환자 등 1천 2백명이 에이즈에 감염됐고 이 중 수명이 사망했다는 사건으로 당시 로랑 파비우스 총리를 포함한 공직자 등 총 21명이 기소됐다. (파리 AFP=聯合)



## 꽃 HIV 양성환에 치료받은 여성들 조사

영국 국립보건국(NHS)은 HIV에 양성 반응을 보인 한 젊은 산부인과 의사로부터 HIV에 감염됐을지도 모르는 1천 7백 52명의 여성들을 소환해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NHS는 이 의사가 지난 91년부터 현재까지 런던과 남부 잉글랜드에 있는 4개 병원의 산부인과에서 일해왔다고 밝히고 그 기간에 이 의사의 치료를 받은 이들 여성이 건강 진단을

위해 소환되고 있다고 말했다.

NHS는 이 의사의 치료를 받은 여성들에게 서한을 보내 "여러분이 감염됐을 위험은 매우 적으며 영국에서는 이같은 방식으로 전염된 환자가 전혀 없었다"고 밝히고 아기 엄마들에게는 이 의사의 도움을 받아 출산한 아가들이 감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장했다. (런던 AFP=聯合)

## 헌혈자 위협행위 보고 안해

### 헌혈앞서 철저한 조사 필요 지적

헌혈자들 중 일부가 동성애나 매춘부와 섹스 등 불안정한 성관계, 정맥마약주사와 같은 위험한 행위를 보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헌혈에 앞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미적십자사 연구원인 앨런 윌리엄스 박사가 헌혈자 3만4천7백26명을 대상으로 위협행위 보고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응답자의 1.9%인 약 6백명이 전염병 감염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위험행위를 하고도 이같은 사실을 헌혈 당시 보고하지 않았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윌리엄스 박사는 이같은 결과가 미국 혈액공급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자아낼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헌혈조사절차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카고 AP=聯合)

## 임부 흡연 태아의 HIV전염위험 높아, 31%로 비흡연자의 21%보다 크게 웃돌아

HIV에 감염된 임산부가 담배를 피

울 경우 태아에 HIV를 전염시킬 확률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의 한 에이즈 전문지가 보도했다.

임신기간중 AZT 등 HIV억제제를 복용하지 않은 9백명의 에이즈 감염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 태아가 모체를 통해 HIV에 감염된 비율은 흡연 임산부의 경우가 31%로 비흡연자의 21%에 비해 크게 높게 나타났다.

또 에이즈가 좀더 진행된 임산부의 경우 흡연자들은 절반가량이 바이러스를 태아에게 전염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흡연자들은 3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필라델피아 UPI=聯合)

## 케냐 아동 60만 수년내 에이즈로 고아될듯

케냐 어린이가 약 60만명이 오는 2000년에 이르면 에이즈로 부모를 잃어 고아가 될 것이며 오는 2005년에는 그 수가 1백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케냐 당국이 전망했다.

케냐 국가인구개발위원회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지난 94년 케냐에서 에이즈로 부모가 사망한 어린이들의 수는 25만~30만명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어린이들과 젊은 성인 모두에 있어서의 에이즈 발병 건수 증가는 2천8백만 케냐인들의 예상 수명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지적됐다. (나이로비 新華=聯合)

## 호치민 HIV감염 마약중독자 전문 병원 개원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마약중

# AIDS NEWS

독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베트남 최초의 병원이 5월 1일 호치민에서 문을 열었다.

이 관리는 과거 마약사범 수용시설이었던 곳에 새로 생기게 될 빈 트리유 병원은 HIV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마약중독자들만을 치료 대상으로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병원은 병상이 50개밖에 되지 않는데다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외래환자의 진료는 받지 않을 방침이다.

베트남에는 현재 공식등록된 HIV 감염자가 5천여명이 있지만, 관리들은 금년말이면 전국적으로 6만~10만명 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하노이 AFP=聯合)

## 미국인들 에이즈 경각심 줄었다 5년내 백신발견 낙관적 견해 증가

미국인들 중 에이즈 감염 가능성에 대해 염려하는 사람이 줄어들었으며 향후 5년안에 에이즈 백신이 발견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늘어난 것으

로 여론조사에서 밝혀졌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미국인들이 에이즈에 대한 경각심을 잃어가고 있으며 이처럼 이완된 정신상태로 인해 에이즈 퇴치 방법 발견이 지연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지난 2월말 미국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해리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10명 중 한사람 정도만이 에이즈에 걸릴 가능성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거의 3분의 2는 5년안에 에이즈 퇴치 방법을 발견할 것으로 믿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 UPI=聯合)

## 佛에이즈 권위자 美 퀸스대로 이적

에이즈 바이러스(HIV) 공동발견자인 프랑스 과학자 록 몽타니에 교수(64)가 파리의 파스티르 연구소를 떠나 美뉴욕시립 퀸스대로 가기로 결정했다고 뉴욕 타임스지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에이즈 연구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은 몽타니에 교수가 오는 10월 퀸스대로 자리를 옮겨 정

부 및 민간기금으로 세워질 연구소를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뉴욕 dpa. AFP=聯合)

## 인도 일반대중까지 에이즈 확산

인도에서 에이즈가 창녀, 트럭운전자, 선원, 공장노동자 등 감염위험이 높은 집단을 넘어서 일반 대중에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밝혔다.

미국 국제개발처(AID)는 작년 타밀 Nadu주에서 1만 3천명을 대상으로 에이즈 바이러스(HIV) 감염위험 행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창녀들이 HIV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되는 콘돔을 다른 위험 집단들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조사에 따르면 비정기적 섹스 상대와 가진 가장 최근의 성행위시 콘돔을 사용한 확률은 창녀가 56%로 제일 많았으며 트럭운전자 44%, 남학생 41%, 여학생 38%, 여성 공장노동자 20%, 남성 공장노동자 17%순이었다.

## 美 49세 미만 환자대상 에이즈 생명보험 판매

미국의 한 생명보험회사가 에이즈 바이러스(HIV) 감염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생명보험을 시판해 화제.

위험도가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생명보험 전문회사인 개런티 트러스트사는 최근 49세 미만의 HIV 감염환자들을 대상으로 월 3백달러의 보험료를 내면 사망시 5만달러의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신종 보험을 도입.

